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2호 【루계 제24525호】 주체103(2014)년 4월 2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한광상동지, 황병서동지, 리재일동지, 김병호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현대적인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가 일떠서 조업을 눈앞에 두었다.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현대적인 항만시설들인 방파제, 잔교, 하륙장, 상가대는 물론 어로공합숙과 휴계실, 살림집, 최신식고기배들, 랭동창고 등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날바다를 헤가르며 뻗어간 수백m의 방파제를 거니시면서 마치 비행장활주로에 온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산물랭동과 절임에 필요한 시설들도 손색없이 건설했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극동기, 랭동차, 유조차, 지게차 등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합숙과 휴계실을 어로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를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멋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어로공주택지구를 어촌단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새로 무은 고기배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의 기술적특성을 알아보시고 지금 당의 의도에 맞게 《단풍》호계렬의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많이 건조되고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성능이 제고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는 볼수록 희한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앞으로 선창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고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14경으로 부르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에서 이번에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건설한것만큼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산기지를 일떠세우거나 이미 있던 수산기지를 개건할 때 이 사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기대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해마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옴으로써 우리 인민들속에서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9일과 1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김정은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또다시 높이 모신 력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령도자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김정은령도자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단동일보》, 중앙TV방송, 국제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동북망, 동북보도망, 웰남신문들인 《년전》, 《꿴도이 년전》, 《하노이 머이》, 《사이공 자이퐁》, 《웰남뉴스》, 이란신문 《이란 뉴스》, 먄마의 통신, 신문들인 《데일리 일레븐》, 《쎄븐 데이 데일리》, 《싼 도 체인》,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일본의 《도꾜신붕》, 《아사히신붕》, 파키스탄의 신문 《데일리 타임스》, 삼마TV방송, 알제리의 인터네트신문들인 《알 슈르끄》, 《알 빌라드》, 뛰르끼예의 쥐한통신, 신문 《싸바호》, 도이췰란드신문들인 《디 웰트》, 《프랑켄포스트》, 프랑스의 인터네트신문 《오랑쥬》, BFM TV방송, 칠레신문 《엘 메르꾸리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먄마, 타이, 알제리, 칠레신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 불멸의 업적

백두산대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위력을 보며 국제사회계는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조선의 자립적국방공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또한 민방위무력도 불패로 다지시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과정에 조선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자립적공업의 잠재력도 최대한 발휘되였다.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면서 조선은 세계의 몇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군사력이 약해 일제식민지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조선이 동방에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군사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찬양하였다.

반제전선의 진두에서 미제와의 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을 당당하고 자주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무적의 힘이고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그는 칭송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의 혁명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쟁도발책동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1일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를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한광상동지, 황병서동지, 리재일동지, 김병호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 리병철동지와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건군사에 있어보지 못한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길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게 된 군부대 비행사들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온 군부대 비행사들은 즉시에 출격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비행중대장으로 자라난 길영조영웅비행사의 아들인 길훈동무가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는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하늘의 육탄용사로 생을 빛내인 아버지의 대를 꿋꿋이 잇도록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의 훈련모습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의 하늘가에 **김정은**결사옹위의 폭음을 세차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길훈동무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길영조영웅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 있소, 대를 이어 날으는 조국수호의 항로요, 잘하오, 정말 잘하오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비행기를 능숙히 조종하여 온 길훈동무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길훈동무를 한품에 안으시고 한동안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장하다고, 정말 장하다고, 비행사대회에서 한 토론을 주의깊게 들었는데 다진 맹세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길영조영웅이 최후를 마칠 때 동무는 몇살이였는가,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길훈동무가 3살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는 다 자라 아버지가 지키던 초소에 섰다고, 25살에 아버지처럼 비행중대장이 되였다고, 우리 혁명의 대는 이렇게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길영조영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진짜배기전투비행사라고, 아버지처럼 조국수호의 항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길훈동무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쌍기편대를 짓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리륙하는 비행기들의 폭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강렬한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4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초저공에서의 횡전을 비롯한 어려운 훈련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대들은 임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을 울리며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비행훈련은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며 사상만 강하면 타승하지 못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였기에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제공권은 우리 붉은 매들의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회에 참가하였던 비행사들이 어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불의에 훈련을 조직했는데 훈련이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항상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들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군의 싸움은 분초를 다툰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몸소 훈련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실전과 같이 벌려 무적필승의 전투능력을 갖춤으로써 결전의 그날이 오면 적진에 제일먼저 돌입하여 《김정은장군만세!》를 높이 부르며 조국통일대전승리의 장쾌한 폭음을 온 세상이 들썩하게 울리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관심속에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이 기간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평양은 혁명의 수도이며 주체조선의 심장이다. 우리가 날로 높아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자면 평양시를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 꾸리고 지방도시들도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면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은 수도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평양시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이 일떠서 수도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오늘 수도 평양은 문명과 번영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도로 되고있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며 이를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가 당의 의도대로 평양시의 선군문화를 전국에 일반화하자면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깨끗이 거두고 잘 관리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건설에 관리를 따라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선다고 하여도 빛을 낼수 없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공원과 유원지,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수도의 풍치를 돋구어주고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자면 꾸리기와 관리사업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고 백전백승의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잡고있는 평양을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르고있다. 올해에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태양의 꽃축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정치행사들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평양시를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리는것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권위와 잇닿아있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목표는 대단히 높고 웅대하며 그 실현의 전렬에 평양시가 서있다. 평양시가 앞장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며 힘차게 내달려야 온 나라에 문명국건설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질수 있다.

우리는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답게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평양시꾸리기와 관리사업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며 찬란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전체 평양시민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평양시꾸리기와 관리사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수도시민들이다.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수도시민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잘 꾸리는것은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이다.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으로 수도 평양을 사랑한다면 자기 집을 깨끗이 거두고 마을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참된 애국자에게는 가정생활을 되는대로 꾸리거나 길거리에 오물이 흩날려도 외면하는 현상, 사회적으로 말고있는 일이 바쁘다고 하여 동, 인민반꾸리기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모든 평양시민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당의 문명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야 한다. 자기 집과 마을과 거리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꾸리고 그 관리사업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공원과 유원지, 극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평양시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평양시를 훌륭히 꾸리는 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사업을 작전하고 조직하며 옳게 진행되여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다름아닌 일군들이다. 일군들이 사업을 어떻게 짜고들고 근기있게 내미는가 하는데 따라 평양시도시미화사업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일군들은 선군문화의 중심지, 혁명의 수도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기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는 자만도취, 처음에는 벅적 끓다가 인차 식어버리는 오분열도,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사무실에 앉아 포치하는것으로 그치는 그릇된 일본새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 일군들의 풍모와 인연이 없다.

우리 일군들은 앉으나서나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수도 평양을 당의 의도에 맞게 세계적인 도시로 더 잘 꾸리겠는가를 늘 모색하여야 하며 일단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밀고나가야 한다. 자신들이 직접 거리와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퇴치해야 할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생땅이 드러난 곳들을 전면적으로 록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조건이 보장되기를 기다려서는 언제가도 도시경영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며 특히 시민들의 정신력,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걸린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평양시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환경을 어떻게 꾸리고 사는가 하는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와 직결되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발벗고나서도록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정치사업을 한번 하여도 건수나 채우는 식이 아니라 실지 시민들이 각성하고 교훈이 될수 있도록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정상보수, 정상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평양시민들이 선군문화의 중심지, 혁명의 수도에서 사는 시민답게 문화적으로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 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종업원들과 주민들, 청소년학생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잔디를 밟거나 거리를 어지럽히는것과 같은 비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평양시안의 전체 일군들과 시민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다.

제16차 김일성화축전 페막

태양절을 맞으며 13일에 개막되였던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페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친 이번 축전은 4월의 봄명절을 보다 뜻깊게 경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수만상의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수십만명의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손님들이 참관하였다.

불멸의 꽃축전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며 련일 성황리에 진행된 축전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페막식이 21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나스리 구스따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외국손님들이 페막식에 초대되였다.

페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김일성화축전상장이 수여되였다.

축전에 참가한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외국인, 해외동포들이 김일성화축전상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많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축전참가증이 수여되였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사적인 대경사를 맞이한 끝없는 환희속에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축전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못잊어 그리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친 위인칭송의 꽃축전, 영생축원의 꽃축전이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앞으로 김일성화축전을 더 성대하고 의의있게 잘 조직하며 불멸의 꽃재배와 보급선전을 적극 벌려 태양의 꽃이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페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4호 주체103(2014)년 4월 11일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함흥청년철도상업관리소
빙상관
대동강자동차수리소
중앙정보통신국 2분국
평양수산물백화점
사리원해운사업소
황주군량정사업소 흰쌀직장
개성시의약품관리소
벽성군 영웅벽성고급중학교
함흥제1백화점
강원도농촌경리위원회 연유공급소
원산시 해안종합상점
라선시농촌경리위원회 복합미생물 비료공장
량강도농촌경리위원회 연유공급소
모란봉구역 개선종합진료소
모란봉구역편의봉사사업소 은덕원
의주군 의주소학교
묘향산휴양소
철산군체신소
순천사슴목장
평성려객 및 화물자동차사업소
사리원시 대성소학교
개성민속려관
사리원시직매점
신원군옷공장
안악군 안악소학교
삼천군 삼천소학교
재령려관
은률군위생방역소
신포시 은덕원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라선시 선봉지구 하현소학교
라선시 선봉지구 라선수매사업소
갑산군상업관리소
금야국수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발표하신 2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높뛰고 있다.

주체101(2012)년 4월 20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온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할 미래,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안고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과 전세계가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인류력사에는 이름있는 위인들과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어버이수령님과 같이 한평생을 바치시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인민의 어버이는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숭고한 위인적풍모,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들이 천명되여있다. 로작은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갈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한 우리 조국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더욱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환희로운 축포와 전국각지에서 성대히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들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충정의 분출이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한 주체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총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 혁명방식,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던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신것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으로 되고있다.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자주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이며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고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주의 성새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대백과전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새세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기틀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일찌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였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될수 있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 우리 조국땅우에 빛을 뿌리는 귀중한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일떠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마련하여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위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려는 천만군민의 열렬한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21세기의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업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이시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김일성주의를 위대한 생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빛내이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신분이 어버이장군님이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특히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고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눈부신 기적들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대로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는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화환 진정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 탄생 122돐에 즈음하여 21일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신 녀사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앞에 놓여있었다.

녀사의 동상과 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와 리무영 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교육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들에 참가하였다.

강반석녀사의 동상과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이어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군사대학, 교육기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시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녀성해방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 회고록학습을 실속있게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한 회고록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이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에 따라 회고록에 담겨진 내용들을 체계화한 직관판들을 만들어놓고 그를 통한 학습을 짜고들고있으며 일군들이 광부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게 하고있다.

얼마전 쇠돌생산으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제2권에 수록된 《무장한 인민》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회고록에 담겨진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준 후 진행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에로 새 세대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해설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더 높은 쇠돌생산성과로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손철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여러곳 참관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옥류아동병원 참관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념관의 여러 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대표단성원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또한 대표단은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방글라데슈에 가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방글라데슈로동당 제9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글라데슈에 가는 리창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 도착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가흐 엘레나 니꼴라예브나 경제발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로씨야 싸할린주정부대표단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도착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과 일행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동지적사랑으로 이어준 삶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 강철영동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날에날마다 아름다운 생활의 꽃들이 활짝 피여나고있다.

동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지난 20년간 한 영예군인을 위하여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여온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 강철영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소행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날도 잠자리에 누운 강철영동무는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예술영화 《내 고향의 처녀들》에서 받은 충동이 왜서인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의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던것이였다.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여준 주인공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상한것인가. 하다면 같은 새 세대 청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모대기던 그는 다음날 아침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다.

《나도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싶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을 했소. 절대찬성이요.》

강철영동무의 어깨를 뜨겁게 잡으며 하는 초급당비서의 말이였다.

이때부터 강철영동무와 청년동맹원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김책시 제강3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문연호동무와 그의 가정을 돕는것을 초급단체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정상화해나가게 되였다.

낯모를 청년들이 방으로 들어설 때 문연호동무는 무척 놀란 기색이였다.

《동무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들이요?》

《우리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있습니다. 우릴 친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강철영, 전장훈, 김경철, 강진선, 최철웅…

청년동맹원들의 진정앞에 영예군인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더욱 감동된것은 강철영동무와 청년동맹원들이였다.

전투임무수행중 불의의 정황속에서 전우들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영예군인, 그가 들려주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있었던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였지만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시도 창작하면서 락천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문연호동무의 모습은 강철영동무와 청년동맹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것이다.

문연호동무의 가정이 대동2동에 있는 새 집을 받았을 때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강철영동무와 청년동맹원들은 영예군인이 받은 새 집에 찾아가 도배지도 발라주고 부엌에 널마루도 놓아주었으며 책장과 책상을 비롯한 여러점의 가구들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책장에는 수십권의 도서들도 가득 채워놓았으며 창고에는 땔감도 무드기 쌓아놓았다.

강철영동무의 뒤를 따라 그의 부모들도 찾아왔다. 아들보다 먼저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생활의 구석을 돌봐줄 때면 영예군인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이군 하였다.

어느날 집으로 들어선 강철영동무는 어머니 최혜란녀성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우리도 대동2동으로 이사하는것이 어때요?》

《지금 사는 이 집도 괜찮은데 그건 무슨 소리냐?》

《실은 영예군인의 집결으로 가고싶어서…》

아들의 마음속진정을 알게 된 부모들은 강철영동무의 요구대로 영예군인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 강철영동무네 집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영예군인을 위하는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강철영동무와 그의 식구들은 자기네는 대용식품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모아두었던 식량을 영예군인의 집에 다달이 보내주었으며 해마다 터밭에서 나는 풋강냉이와 햇감자는 물론 풋마늘을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도 철따라 가져다주었다.

언제인가 영예군인이 갑자기 앓게 되였다. 이때에도 강철영동무와 그의 가정에서는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별식도 안겨주고 병구완도 해주면서 친혈육의 정으로 그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진정을 다하였다. 영예군인이 리용하는 세바퀴차도 든든하게 손질해주고 어느해 겨울에는 도배지와 비닐레자를 해결해주면서 그의 생활을 위해 마음써온 강철영동무와 안해 리영금동무,

영예군인의 아들이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였을 때에도 강철영동무의 가정에서는 학용품이 일식으로 들어있는 책가방과 운동화도 마련해주어 영예군인 부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참으로 강철영동무가 영예군인가정을 위해 바쳐온 나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일들을 적자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강철영동무의 소행에 감동된 영예군인 문연호동무와 그의 안해 홍명애동무는 지난 기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순결한 땀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우리와 만난 영예군인 문연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4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제가 50살이 바라보이는 오늘에도 삶의 보람과 희열을 한껏 느끼며 건강한 몸으로 락천적으로 살아갈수 있게 된것은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과 그 품에서 나서자란 강철영동무와 같은 미덕의 소유자들이 많기때문입니다.》

문연호동무가 이어가는 삶, 이것은 강철영동무와 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바쳐가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이 더해준 삶이며 인간사랑의 화원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복받은 삶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떠나갔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 벌가리아 와르나가극극장 명배우일행, 벨라루씨국립무용단, 우크라이나 끼예브무도극장무용단, 에짚트교예단, 핀란드취주악단, 꾸바기타독주가와 재일조선인예술단, 재중조선인예술단, 재오스트랄리아조선인독창가일행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산동성교예단), 도이췰란드 크로이젠 콘써트협회 첼로독주가, 말레이시아 마이 하모니카 월드중주단, 몽골전군협주단, 오스트리아 원목관중주단, 인도네시아 드위키음악단, 중국연변문화예술연구소대표단을 비롯한 축전참가자들이 비행기와 렬차로 갔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주조 인도네시아, 꾸바특명전권대사와 중국,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귀국

몽골주체연구쎈터대표단,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대표단,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일행,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위원장,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각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캄보쟈의 노로돔 모니니예트 시하누크대왕후》라고 씌여져있었다.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대형꽃바구니들을 왕궁담당 부수상 콩 쌈올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7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진정하였다.

부수상은 국왕과 대왕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기를 기원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과 조선인민이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또한 캄보쟈와 조선사이의 친선의 뉴대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여러 나라에서 경축집회, 강연회 진행

태양절경축집회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 《영원한 태양절》이라는 주제의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여있었다.

집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로씨야외무성, 조선전쟁로병리사회, 고려의학쎈터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태양절경축 로씨야사회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뻬뜨로브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조선인민과 함께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게 된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조선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 조선은 몰라보게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로씨야외무성 부국장 마쩨고라, 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크라마렌꼬, 고려의학쎈터로씨야측 책임자 쥬꼬바 등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에서는 경축집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가 2일과 4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태양절은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다.

그것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를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여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조선에 펼쳐진 빛나는 현실은 전적으로 주석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모든 분야에 구현하신 결과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이룩하신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기네 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부위원장 마마두 싸이두바호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보도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위클리 인다스트리》 3월 23일부는 《김일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이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수류탄을 만들어 침략자들과 싸워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15성상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조선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이 갱도전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들로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승리를 이룩하도록 이끄시였다.

전후에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여 조선인민이 자주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하시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3월 25일부는 김일성주석께서 높이 추켜드시였던 자주의 기치는 오늘도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3월 28일 캄보쟈의 국가라지오방송과 에프엠 90.5 방송은 태양절을 맞으며 국제사회계가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을 뜨겁게 회고하고있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방송들은 강조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빛내여주신 전설적영웅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상공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행사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일군들, 산하조직 대표들, 길림시의 재중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길림시인민정부 부시장, 길림시공안국 부국장 등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프랑카드를 든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참가자들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2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가운데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빛내여주신 전설적영웅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은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빛내이시였다고 피력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부흥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애국충정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합창으로 끝났다.

이날 태양의 꽃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주제로 사진 및 도서전시회가 진행되였으며 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가 있었다.

이에 앞서 12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가, 13일 중국 심양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가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날로 극악해지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그 무슨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 3월 미국에 추종하여 유엔인권리사회에서 허위와 모략으로 가득찬 《북인권결의안》조작에 앞장서 가담한 괴뢰패당이 이번에는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극악한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얼마전 괴뢰외교부 1차관이라는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인권사무소〉를 유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하였으며 외교부 대변인이라는자도 《북인권사무소》설치를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줴쳤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렸는가 하면 《북인권시민련합》을 비롯한 17개의 보수반동단체들과 악질보수언론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의 《촉구》요 뭐요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할수 없는 극악한 정치적도발이며 대결광기의 극치이다.

원래 유엔《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 놀음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해 조작해낸것으로서 그 불법성과 도발성으로 하여 내외여론의 커다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이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이 법, 제도적으로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다 못해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려고 날뛰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배격하면서 그 후보지가 되는데 대해 등을 돌려댔다.

하기에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려온 남조선의 이전 《정권》들도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현 괴뢰패당이 그러한 불법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선임자들을 릉가하는 대결미치광이들이며 그들의 동족적대광란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권페허지대로 만들어놓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생존권마저 깡그리 유린하여 안팎으로 신랄히 지탄받고있는 괴뢰패당이 그 주제에 누구의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자청해나선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세상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이 입만 벌리면 줴치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고 조작한 반공화국모략과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설치하려고 발악하는것은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자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의 국제적거점을 저들땅에 만들어놓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특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극악한 도발광란을 일층 강화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야당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을 압박하여 괴뢰국회에서 《북인권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당면한 6월 지방자치제선거에 유리하게 써먹어보려는 음흉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괴뢰패당이 비렬하고 유치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와 파멸밖에 없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데 대해 우리 천만군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경고와 온 민족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극히 불순한 《북인권사무소》설치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우리는 우리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어떤 파국적후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부질없는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중앙회관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로므니아정당, 단체 항의편지

로므니아정당, 단체가 9일과 10일 일본수상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비법적이며 강제적인 매각허가결정은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한 처사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적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는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범죄에 대하여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일본이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은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 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로씨야인사들 담화 발표

로씨야인사들이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규탄하여 1일과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또르 예고로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국가이다.

조선인민에게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활동거점인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리였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의 응당한 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일본정부는 비법적인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철회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쓰. 엠. 크라마렌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기에 미국방성의 한 고위인물은 미군에서 자살은 이미 류행병으로 되였다는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심리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하여 병사들의 우울증 및 전후종합증에 대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 신통한 묘책이 되지 못한다.

이전에도 미당국자들이 미군부대내에 《심리전담반》이라는것을 내온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으나 그 식이 장식으로 되고말았다. 오히려 사태는 더욱 악화되였다.

미군병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것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때문만이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건대 그것은 전쟁때문이다. 미국이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숱한 미군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며 정신이상자들이나 알콜 및 마약중독자, 살인범죄자, 자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미군에서 이번에 일어난 범죄의 원인은 명백히 당국의 침략전쟁정책에 있다.

본사기자 리학남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일본당국의 총련탄압책동을 규탄하여 5일과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쓰르비아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당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거연히 나붓기는 총련중앙회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강탈하기 위하여 책동하여왔다.

그러던 일본당국이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 경매수속상 관례들을 전부 무시한 전대미문의 사기협잡극을 조작한것이다. 이번 처사는 명백히 파쑈적인 폭거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공화국의 존엄과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야말로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국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단호히 배격하며 일본당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한다.

타이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 배상할 대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다 못해 총련중앙회관까지 강탈하려 하고있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의 응당한 국가적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우리는 일본이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사기자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동부띠모르가 9일 농업, 에네르기, 문화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할데 관한 협조문건들에 조인하였다.

한편 이날 이란과 아제르바이쟌은 체육, 에네르기, 도로건설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량해각서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저수지건설계획

웰남의 호지명시에서 최근 비물을 잡아둘수 있는 저수지들을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도시교외에는 30개의 큰 저수지들이, 도시중심부에는 수백개의 소규모저수지들이 건설되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도시에서의 큰물피해를 30% 줄일수 있게 된다고 한다.

경제 장성

가나에서 지난해 경제가 7.1% 장성하였다. 9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싱가포르의 항

사회의 골치거리로 된 침략전쟁후유증

얼마전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란사사건이 일어났다. 범죄가 판을 치는 미국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색채가 좀 다르다. 범죄자가 현역군인이고 그의 범죄동기가 사회적인 론의거리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사건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후드군사기지에서 터졌다. 로페즈라는 미군병사가 전투복차림으로 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부었다. 이로 하여 3명이 죽고 16명이 부상당하였다. 부상자들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

사건발생이후 미국의 해당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일정하게 시간이 흘렀지만 수사에서는 이렇다할 전진이 없다. 다만 알고있는것은 범죄자가 이라크에 파병되였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강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에 주의를 돌리고 여기에서 범죄동기를 찾고있다. 그런데 미군당국이 이것을 반대해나서고있다.

미군부의 고위인물인 죤 맥휴가 국회 상원청문회에 나서서 범인이 이라크에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느니, 정신과치료에서 우려할만 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요컨대 범죄가 발생한것이 이라크에 파병되였던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이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다.

로페즈는 이라크전쟁에 참가하여 강한 정신적타격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하여 쌓인 스트레스로 모대기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지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병사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미 제대된 병사들도 대부분이 강한 스트레스로 하여 우울증과 정신이상, 공포증에 시달리고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정신이 들락날락하든가 알콜 및 마약중독자로 되였다는 소리가 나돌겠는가.

자료에 의하면 이라크전쟁당시 교대로 이 나라 땅을 떠날때부터 3~5%의 미군병사들속에서 심한 정신이상증이 나타나고 3~4개월이 지나면 30%이상이 정신병증세를 나타낸다고 한다.

모든것은 참혹한 전쟁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새 세기에 들어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숱한 미군병사들을 이 나라들에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세계일류급》의 군대라고 《강대성》을 자랑하며 짧은 기간에 이 나라들을 평정하겠다고 떠들었다. 저들의 군사적힘에 이 나라 사람들이 넋을 잃고 순종하리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되였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사람들은 미군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매복, 습격, 지뢰매설, 폭탄공격 등으로 부단한 소모전을 벌렸다. 미군병사들속에서는 매일같이 사상자가 났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미군병사들에게 있어서 생지옥으로 되였다. 미국이 《승리》를 떠들었으나 어느 하루도 총소리가 멎은적이 없었다.

미군병사들은 언제 어느 시각에 목숨을 잃을지 몰라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다. 이것은 미군병사들속에서 심리적변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전투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부상자들의 처참한 모습과 긴박한 정황이 조성될때 오는 정신적압박감과 절망감은 미군병사들의 얼을 완전히 빼놓았다.

어떻게 해서나 살아남아야 한다, 이 생각만이 미군병사들의 머리를 지배하였다. 명령에 대한 불복종, 꾀병 등 여러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기지안에서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반미세력은 기지안에 있는 미군병사들이 편안히 앉아있게 하지 않았다. 로케트공격을 부단히 들이댔다. 어떤 때에는 대담하게 기지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뭐니뭐니해도 방탄조끼와 장갑화된 차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미군병사들이 군부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제살궁리는 제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미군병사들은 오물장들을 돌아다니며 파철과 방탄유리쪼각들을 주어다가 때고 붙이고 하여 자기 식의 《방탄화》를 실현하였지만 그것도 생명안전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미군병사들속에서는 불안과 정신적번민속에서 모대기다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병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공포에서 벗어나보려고 알콜과 마약을 람용하는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만연되였는지 미국에서는 전쟁터에 끌려나갔던 사람들은 다 알콜이나 마약중독자라는 딱지가 붙어돌아가고있다. 그들은 쓸모없는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되였다. 갈길은 뻔하였다. 범죄의 길에 뛰여들거나 자살하는 길뿐이였다. 결국 범죄자들과 자살자들이 늘어났다.

미군내에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은 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3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거의 매일 한 사람이 자살한것으로 된다. 미당국자들로서는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ㄱ-41062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